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

제주어는 우리의 보물이다. 제주어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라고 해서만이 아니다. 제주어는 현대의 표준어보다 더 섬세한 언어의 면모를 보여주는 규칙과 어미 활용 등을 품고 있으며, 15세기 우리나라 표준어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언어일 수도 있다. 필자가 제주어를 접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다. 제주어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표기법'이 고시된 지도 5년이 되었다.

제주어 표기법의 통일과 준수에 솔선수범하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주어 원어인이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언어가 제주어 아니냐' '제주어의 면면과 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서 통일된 사용이 어렵고 보존도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심지어 '제주어를 꼭 사용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는, 한 사회가 품고 있는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제주어를 제대로 접해 보지 않아서 그 가치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다.

이런 부정적 현상이 제주어에 관한 전문가나 전공자, 학자 같은 이른바 지도층의 경우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이분들에 의해서 걸러진 간판에 '제주방언'이 버젓이 쓰이고, 이 분들이 직접 쓰거나 검수한 글귀에 고시된 표기법과는 다른 표기가

공공연히 나타난다. 지도층이 자기 이론이나 주장과 다르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필자 같은 문외한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분들 중에는 제주어에 관한 주장은 학자 소관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제주어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면 착각이다. 사용자가 없는 언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어의 사용자인 필자는 그저 제대로 제주어를 아끼고 사용하며 보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표기법을 통일시키고 솔선하여 지키면서 모범을 보여 주시라고 당부할 뿐이다.

대상에 대한 존중과 사상이 없는 학문은 가치가 없다. 제주어를 대상으로 그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그게 학문이고 연구다. 언어의 소비자가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 바로 잡아주는 게 그 소관 아닌가.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제주어의 바른 방향

을 위해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소신과 충정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주어의 수준과 생존보다 자기의 주장과 자존심을 우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면 이는 지혜로운 사공이 없거나, 없느니만 못한 사공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야 이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된 후에는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언어 독립 투쟁을 전개하였고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한 이극로 박사는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셨다. 제주어의 보존을 위해 제주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돌아보시라.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니 판결 기준은 '어인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여준 욕심 버리기'였다.

사설

제주공항 '램프리턴'은 안전 예방주사

제주국제공항은 하루 2만여명, 연간 30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옛것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항공기에 승객이 잘못 탑승하면서 항공기가 활주로로 가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13일 오전 7시55분쯤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동 도중 한 승객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알게 돼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습니다.

램프리턴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주기장(탑승구)을 떠났으나 기체 이상, 기내 환자 발생 및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륙이 불가능해 다시 터미널 혹은 주기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일컫습니다. 항공기 기체 이상이나 환자 발생 등 정상적인 이유로 램프리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현재 해당 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승객이 티켓 확인 절차를 무사통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공사 측은 "해당 항공기에 오탑승한 승객과 이름이 같은 예약자가 있어서 탑승권이 동명이인 2명 모두에게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찔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입니다. 잘못 탑승한 승객을 내려준 뒤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여 늦어진 오전 9시 5분쯤 승객 185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하면서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만일의 경우 발생했을 법한 일로 인해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있습니다. 테러 등 불순 목적을 갖고 있는 승객이 탑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주공항은 1년에 1500만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인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때문에 공항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주 관문이 안전하다면 제주 대표산업인 관광도 안전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제주관광은 곧바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제주공항을 이용한 승객의 잘못된 탑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주안전을 위해 보다 더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주공항의 램프리턴은 예기치 않았을 수 없는 승객이 티켓 확인 절차를 무사통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열린마당

배려! 청렴의 초석



한지운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지식의 저주'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이 단어는 내가 알면 남도 알거라 생각하는 현상을 말하는 데 199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인 엘리자베스 뉴턴의 논문을 위해 이루어졌던 실험이 그 예이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한 쪽은 유명한 노래를 들려주고 리듬에 맞추어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게 하고, 다른 한쪽은 노래에 대한 정보가 없이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제목을 맞추게 했다.

테이블을 두드리는 쪽에 상대방이 제목을 맞추도록 물어보자 50%는 정답을 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겨우 2.5%만이 제목을

맞추었다.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과의 정보 차이는 심할 수밖에 없다. 위에 현상대로 공무원이 당연히 민원인은 이 정도는 알겠지? 생각하고 배려 없는 응대를 한다면 민원인은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응대하는 입장에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응대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정보 우위의 갑질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결국 민원인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공무원의 청렴한 자세가 비단 뇌물수수할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가 격동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된 내용은 갑질근절에 있었다. 갑질현상 원인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고 한다. 조금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민원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청렴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지사, "깨끗한 물 확보는 생명선 지키는 일"

도 주간회의 수질대책 공유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부서별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을 공유.

환경보전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수질전용측정망과 오염방지 그라우팅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농축산식품국은 양돈분뇨 고도화 처리를 통해 정화 후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

원희룡 지사는 "깨끗한 수질과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정 계획에 반영시킬 중장기 비전 과제를 설정해 달라"고 주문.

표성준기자

"신뢰받는 공기업 되겠다"

○...문대림 JDC이사가 14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다짐해 눈길.

문 이사장은 이날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기념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신경영방침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언급.

특히 "제주의 고유가치 창출을 통해 제주와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통해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

고대로그자

제주시 보안관리 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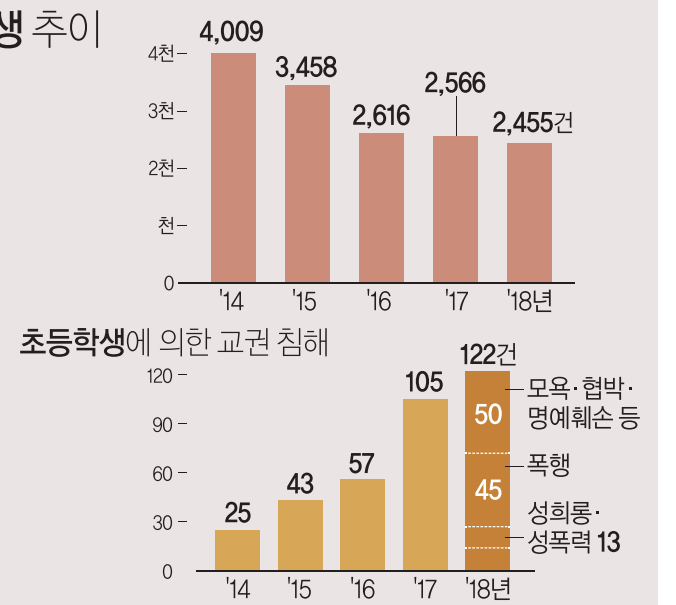
○...제주시는 본청 및 읍면동, 68개 외청부서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정보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

이는 평소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및 현장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노출 등 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

한 관계자는 "취약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은 물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정보보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그래픽 뉴스

교권 침해 발생 추이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대군(형년 5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인 고창화
아들 김현규
딸 김수현
재형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 해외농업 (개발) ★ (영농조합인, 10명모집)

지역 : 베트남 (다낭, 팡남)
사업명 :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 (만감류)

동남아시아수출 (96만평) 기성, 토양, 최적지 (고소득 창출)

상담문의 010-9292-6933
농개동 황금농원 010-2699-5572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증-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화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제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 798-8800

- 독립적인 호텔식 분향실 및 접객실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대중교통 270분, 793-1번 이용가능
<애월읍 순환버스, 일반간선버스 운행중>

노형에서 10분 거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노형방향 1.5km지점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있음

위치
노형동 제주일고 남측 150m지점
도화정원룸 102호
제주시 진군길 46-4

연락처
010-7120-3609

당사에서 제조하는 편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와 식품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편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집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측)
벤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대리병원 임상결과 및 50성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